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312 | JULY-AUGUST 2023



黃錫斗
루카
聖人

2023.04.02
정호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3년 7-8월호 / 통권 312호

발행일 2023년 7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3 ©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12 | JULY-AUGUST 2023

렌즈로 보는 세상	4
편집장의 글	5
함께 읽는 성경	6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교회의 가르침	10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4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20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4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30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34 영·육 간의 조화
듣다 읽다 보다	36 고전 음악을 듣다
	44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48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4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7월
	60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8월



THE COVER

성 황석두 루카

그린이: 정도운 엘리야(<http://artist-jdw.com>)



6월부터 3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더위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드디어 여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여름휴가’가, ‘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휴가 성수기를 피해 이미 5월, 6월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9월, 10월 비성수기에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쉬다’는 동사로서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 “잠을 자다.”, “일이나 활동을 잠시 그치거나 멈추다. 또는 그렇게 하다.”, “일감이 없어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직장 따위를 그만두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가톨릭직장인」 구독자 여러분은 “쉼”을, “여름휴가”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Day-off 쉬는 날, Vacation 휴가, Bird’s eye view 내 삶을 내려다보는 시선, Relaxation 여유, Self-talk 자기와의 대화, Rest 아무것도 안 하기, Me time 나를 위한 시간” 등등.

내가 생각하는 휴가는, 쉼은 어떤 것인가요?

올해 사순 특강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30분 이상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핸드폰이 없으면 안 돼요”, “5분도 너무 길어요”, “혼자 못 있어요” 등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끼여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침묵의 시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쉼표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라고 합니다. 곡 안에 존재하는 쉼표들은 음들을 더 부각해주기 때문에, 쉼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음악의 전체적인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가들도 쉼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냥 음악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연주가, 예술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오늘날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한 가지다. 인간이 홀로 조용히 방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는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장소이자 내면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을 찾아 편안히 쉬고, 쉼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과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연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하실래요?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창세기 공부(6장~11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벌을 주실 때도 인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십니다.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느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는 ‘올바르고 흠 없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흠 없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

의 뜻에 따라 살았고, 이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인간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6,12). 하느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릴 작정을 하시지만 노아만은 구원하셨습니다. 배를 만들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노아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배를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배를 만드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배만 만들어라 하시지 않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도 구원해 주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남용하고 왜곡할 때는 저주가 됩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시간과 능력을 투자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거

기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7장에서 보면,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노아에게만 당신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여러 형태를 통해서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노아는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황에서 큰 배를 만들었고, 다른 이들은 노아를 놀렸습니다.

8장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고 하느님의 진노는 계속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방주,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홍수 사건이 끝난 후 8장 20절에서 보면 노아는 하느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재계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살생에 대해

서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고, 인간은 하느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11장 바벨탑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홍수 사건을 잊어버렸음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를 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느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에게 도전한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느님은 언어를 갈라놓으셨는데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혼란이 옵니다. 바벨탑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는 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이 하나로 하느님에게 도전하였고, 하느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권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읽고 아래의 문제를 답해주세요.

- 하느님께서 왜 사람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하셨나요? (6,5-6,13)
- 하느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6,8)
-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6,9)
- 하느님께서 어떤 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나요? (6,14)
- 땅에는 며칠간 홍수가 있었나요? (7,12)
- 비가 그치고 방주가 멈춘 곳은 어디였나요? (8,4)
- 노아가 땅에서 물이 빠졌는지 보려고 날려보낸 새는 각각 무엇이었나요? (8,6-12)
-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8,20)
- 하느님께서 어떤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9,3-4)
- 하느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어떤 계약을 세워 주셨나요? 그 계약의 표징은 무엇인가요? (9,9-17)
- 포도를 가꾼 첫 농군은 누구인가요? (9,20)
-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9,18)
- 하느님께서도 알아주신다고 하신 힘센 사냥꾼은 누구인가요? (10,9)
- 바벨탑을 쌓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바벨’의 뜻은 무엇인가요? (11,9)

다음 성서 구절을 직접 써보세요.

- 6장 11절-12절
- 8장 21절-22절
- 9장 7절
- 9장 11절
- 9장 18절

생활을 반성해보고 영적일기를 써보세요.

- 1) 오늘의 세상도 죄악이 만연된 세상입니다. 구약성서의 노아처럼 흠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중에 사는지, 나의 생활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 2) 우리 가정과 단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바벨탑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성품성사, 교회를 위한 거룩한 봉사의 직무

왕태연 요셉 신부_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예수님께서 지니신 놀라운 능력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서는 굳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어떠한 일이든 충분히 해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 열두 명의 사도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성령의 이끄심 덕분에 충실히 수행하셨고, 오늘날 그 임무는 성품성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제들은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족함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제들이 지니는 인간적인 약점이 성사의 효과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사의 은총은 사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51항은 사제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바로 봉사의 직무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목자들에게 맡기신 임무는 바로 참 섬김입니다. 사제직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제직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일한 사제직에 속한 것이며,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성품성사는 ‘거룩한 권한’, 바로 그리스도의 권한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의 행사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로써 예수님을 닮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품성사에서 주어지는 “겸손”과 “군침”의 은총 없이 사제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제의 인간적인 공과(功過)가 어떻든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보다 결코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들이 이미 제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거나,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활에 함께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 곧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참된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품성사의 품위와 권위는 하느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느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입장에서조차 사제가 지닌 인간적인 재능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느님 말씀에 봉사함으로써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성품성사를 살아가는 사제들에게는 더 적절하고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품성사를 통해 사제들이 받게 되는 직무가 매우 고유하고 특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함과 특별함 때문에 사제직이 교

회 안에서의 특별한 ‘계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제들의 직무 사제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무 사제직은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봉사하고자 쓰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제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곧 은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자신을 다른 모든 이들 위에 드높이는 승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존엄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세례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역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당공동체 안에서 사제들이 신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제들이 신앙공동체 안에서 ‘높은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도 다를뿐더러, 신앙공동체의 성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사제들이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된 데에는 신자들이 자신의 ‘보편 사제직’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반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헌신은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들에게만 주어지는 몫이 아니라, 세례성사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제들과 신자들은 서로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사랑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47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교와 사제들의 직무적이고 교계적인 사제직과 모든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은 세례의 은총과 믿음·바람·사랑의 삶,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반면, 직무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을 위

하여 봉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례 은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는 10월에 개막되는 세계 주교 시노드(Synod)의 주제인 ‘시노달리타스’에 있어서도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에 대한 성찰은 교회의 올바른 여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성품성사”가 직무 사제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사이기에, 보편 사제직을 살아가는 신자들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묵상함으로써 사제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신자로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다짐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성품성사”는 신자들 역시 반드시 함께 묵상하고 성찰해야 할 성사입니다.

교회는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제들의 것도 아니고,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신자들의 것도 아니며, 오직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제들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⑨

보조성(補助性, subsidiarity), 그리스도인 사회생활의 원리

- 어디까지나 ‘주(主)되는 것을 상대로 거들어 주거나 돕는 데에’ 행사되어야 할 보조의 힘(권력)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지금까지 사회교리 일반(인간 존엄, 공동선, 지상 재화의 보편 목적과 공동 사용권, 사회적 약자 최우선)을 소개했는데, 오늘부터는 ‘사회생활의 원리’로 제목을 변경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모든 사회 현안을 성찰·판단할 때 그 ‘잣대’로, 또 합당한 행동을 선택할 때 그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보조성, 책임 있는 참여, 연대성은 그리스도인 사회생활의 행동 방식들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1. 보조성의 원리

오늘은 ‘보조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을 비유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기 때는 밥을 떠 먹여주지만, 자라면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자녀도 때가 되면 도움(보조) 없이 먹고 싶어 합니다. 생활 전 영역에서 그렇게 무상(無償)의 호혜 과정을 거쳐 부모도 자녀도 자립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립이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삶)은 첫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상호인격적 관계 맺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 제목의 ‘주(主)되는 상대’는 ‘자녀’이며, ‘보조의 힘(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부모’인 셈입니다. 이런 비유를 사회의 차원과 단위들 사이의 관계에 확장·적용하는 것을 보조성의 원리라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인간 존엄과 공동선의 실현)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간추린 사회교리」 186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1883항 참조).

‘더 작은’과 ‘더 큰’이란 말은 규모에 있어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예로 들면, 동(洞), 구(區), 시(市)와 군(郡), 도(道), 국(國)이 있는데, 여기서 각 단위의 힘(행정력)의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세계 공동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실효적으로 구속력(拘束力)을 발휘하는 가장 큰 상위 규모의 집단(사회)은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성은 상위 집단이 지닌 힘(권력)은 어디까지나 하위집단이 그 기능이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만 돕기 위해 행사(개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권력 행사의 제한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위집단 쪽에서는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그 기능이나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임의로 그 책무를 상위 집단에 떠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자율(自律) 및 책임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사회생활에 있어 극단적인 전체주의(全體主義) 또는 파시즘이나 극단적인 자유주의(自由主義) 또는 집단 이기주의(利己主義)의 행태를 경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선성’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우리는 ‘시민’이나 ‘시민사회’의 개념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과 ‘시민사회’에 관한 인식과 태도는 흔히 역사에 있어 근대(近代)와 전근대(前近代)를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사회 내의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곧 상위 집단이 개입해야 하는 분야와 그 개입의 정도 및 수준, 그리고 하위집단이 수행해야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의 분야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consensus)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공동선의 실현은 각각의 시대와 사회적 조건이라는 구체적 배경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보조성과 경제·금융 집단(영역)

오늘날 보조성은 특히 경제·금융 집단(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 하는 흘러간 옛 노랫말(?) 내용에 동의하는지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당연하지!’하고 수긍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하지 않나요? 지나친 표현이겠지만, ‘돈 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한 다’와 ‘돈 안 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고(思考)방식과 생활 양식이 우리 생활과 사회 전 영역을 압도하고 있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는 강력한 그 돈의 힘에 공공연히 ‘자유’라는 날개까지 달아 주려 합니다. 마치 그 돈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 ‘사람과 사회(국가)’는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히 경제지상주의(經濟至上主義)라 할만합니다.

교회는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21세기는 국민 국가들의 권력 약화 현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경제·금융 영역들이 초·국가적으로 되어 정치 영역을 압도하는 경향 때문입니다”(프란치스코,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 172항). 교황은 ‘돈의 우상화’ 또는 ‘지배하는 금융 체제’를 고발하면서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사도 권고 「복음의 기쁨」, 55-58항 참조). 이런 배경에서 교황은 보조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보조성의 원리를 명심합시다. 보조성의 원리는 ...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공동선에 대한 더 큰 책임감도 명령합니다. 오늘날 이 원리는 일부 경제영역들이 국가들 그 자체보다도 더 큰 권력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사회 회칙 「찬미 받으소서」, 196항).

3. 보조성과 시민사회의 우선성

오늘날 보조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성찰해야 할 중요한 주제 가운데에는 ‘국가의 책임과 시민사회의 우선성’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선성은 ‘시민사회의 자율성’ 또는 ‘시민사회의 주체성’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국가의 책임과 함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선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의 공헌으로 공동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를 나타내는 것인 그 결속, 일치, 조직을 보장해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168항).

“정치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에, 결과적으로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시민)들과 집단들에 복무한다. 따라서 ... 정치 공동체(국가)가 그 정당성을 찾는 곳은 시민사회 그 자체에서이므로 시민사회는 정치 공동체에 우선한다. 국가는 사회적 주체들이 그들의 활동들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418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민사회의 우선성’을 훌륭히 드러내는 한 형태로서,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는 다양한 대중 운동(popular movements)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필요한 것은 대중 운동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참여의 모델입니다. ... 그 운동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제안하고 촉진하며 해방하는 사회적 시인들입니다”(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 169항).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태도는 폐쇄적 전체주의적 국가관이나 이기적 인간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와 경제(돈)가 그 본령, 곧 사람과 사회의 삶에 이바지해야 하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실효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의 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사회 회칙 「찬미 받으소서」, 179, 181항 참조). ☞

CORNERSTONE



↑ 예제키엘서에 묘사된 천사 케루빔(Cherubim)의 모습이다. 네 머리는 복음사가를 상징한다. 사람의 머리는 마태오, 사자는 마르코, 황소는 루카, 독수리는 요한이다.

천사 (Angels, 라틴어: Angelus)

천사는 영적 존재다. 육체도 남녀구별도 나이드 무의미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기록엔 두 모습이 있다. 첫째는 날개가 없는 보통사람 모습이다. 평범한 남자의 형태를 취했다. 두 번째는 날개를 가진 특별한 자태다. 대표적인 것이 세라핌과 케루빔이다. 세라핌(Seraphim)은 하느님을 보좌하는 천사 중 서열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 이사야 예언서에 처음 등장한다.(이사 6,2) 케루빔(Cherubim)은 둘째 서열 천사들이다. 유대인은 아담과 하와가 떠난 에덴을 이분들이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창세 3,24)

중세 이전 그림에는 천사들이 청년이며 날개가 없다. 날개를 지닌 천사는 중세 이후 그림에 등장한다. 유럽인 옷을 입은 우아한 자태다. 인간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가미된 것이다. 미카엘 천사는 갑옷과 함께 칼을 들었고 가브리엘과 라파엘은 자상한 남자의 모습이다. 천사는 하늘사자(天使者)란 뜻이다. 하늘의 명을 받고 심부름한다는 의미다. 사람이 죽으면 혼을 데려가는 이를 저승사자라 했다. 동양의 천사들이다. 히브리 말은 말라흐(malah)며 직역하면 심부름꾼이다. 희랍어는 안젤로스(Angelos)로 번역했다. 파견된 자란 의미다. 라틴어 안젤루스와 영어 에인절(Angel)은 여기서 파생되었다.

유대인은 천사를 하느님의 분신으로 여겼다. 조상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기에

민족이 가능했다고 믿었다. 욥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란 표현까지 했다.(욥기 2,1) 그만큼 가깝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사탄 역시 원래는 천사였고 주님께 맞서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민간신앙이다. 이 항명 사건에서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외치며 수습한 인물이 미카엘이다. 그의 외침은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 이 전승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 묵시록 12장이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대한 용을 미카엘이 쳐부순다. 묵시록의 용과 뱀은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이들을 암시한다.

성경에 이름이 명시된 천사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세 분뿐이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천사도 많이 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마태 2,13) 사도를 옥에서 탈출시킨 천사,(사도 5,19) 회고 긴 옷을 입은 젊은이(마르 16,5) 등등. 천사에 대한 공적발표는 1215년 열린 4차 라테란 공의회가 처음이다. 하지만 유권해석을 내리진 않았다. 천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름만 허용했다. 다른 천사 이름의 사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날 세 분 천사의 축일은 9월 29일이다. 원래 이날은 로마에 세워진 미카엘 대성당의 봉헌식이 있던 날이었다. 이날 세 분 천사를 함께 기리면서 축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출처: 2019년 7월 7일 연중 제14주일 가톨릭마산 8면, 신은근 바오로 신부]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중인 출신 최필공 토마스(1744-1801) 순교복자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순교복자 최필공에 대해서는 교회 기록과 관찬(官撰)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일단 교회 기록들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봅니다.

교회 기록에는 때때로 그의 세례명이 처음에 마티아로 나오는데, 그것은 초기 조사 때 잘못된 것으로 그 뒤로 그의 세례명은 토마스 로 수정되어 나타납니다. 조정에 소속된 의원 집안 출신이고,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빈곤한 삶을 살아서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집안인데 빈곤했고 결혼도 못할 정도라니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마도 그는 일찍 고아가 된 상태였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 혼인에 대한 생각도 잘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1790년경 최창현 요한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열정에 사로잡혀 믿고, 종종 군중들

앞에서 “천지의 대왕이자 만물의 주님이신 주님을 만유 위에 섬겨야 합니다”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무도 잘 알려져 있던 최필공은 1791년 진산 사건의 여파로 형조에 소환되었는데, 과감하게 천주 신앙을 증언했고, 정조는 그의 솔직함과 순진함 때문에 목숨을 살려주면서 회유책을 쓰게 됩니다. 약간의 굴복의 기미를 보이지, 임금(은총)은 그에게 평안도 지방의 심약(審藥: 조정에 올리는 약재를 검사하는 직)에 임명하였고, 정조의 도움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혼인을 주선해주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최필공은 임금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는 했지만, 내적으로는 갈등이 있었고, 외적으로 냉담을 하면서 3,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개하여 천주교로 돌아옵니다.

교회 기록에는 임금과 최필공이 논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임금 : 너희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신 만물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올 수가 있고, 이 세상에 강생할 수가 있으며, 더군다나 악한 자들의 손에서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함으로써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는 믿기에 어려운 것이다.

교우 : 옛날에 지극한 성왕이셨던 성탕(成湯) 임금께서는 7년 동안 가뭄이 들어 모든 백성이 죽게 되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톱을 깎고 머리를 잘랐으며, 짚을 옷 삼아 입으시고는 당신의 몸을 희생물로 바치고, 상림(桑林) 벌판으로 나가 눈물로써 당신의 죄를 뉘우쳤으며, 기도문을 지어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많은 비가 내려 2천리가 넘는 땅을 적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성군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하물며 구원의 은총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 이 세상의 만물이 구원의 은총에 젖어 있으며, 또 그 은총에 의해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임금님께서 믿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임금 : 불교의 교리 또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큰 ‘불’이라

는 이름만으로도 거기에 견줄 만한 것이 없는 데 어떻게 그것을 가볍게 보고 경시하느냐?

교우 : 만일 이 이름이 없었다면 그는 무엇을 방패 삼아 몸을 지켰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 이름을 흠친 것뿐입니다. 실상, 석가여래는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아들인 한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과 천하에 나 홀로 위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거야말로 오만이며 우스꽝스러운 자만심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덕이 있고 무슨 성덕이 있어서 그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경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처럼 최필공 토마스는 그가 지닌 유학적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당시 천주교가 불교의 별파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의 기록에는 위의 교회 기록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조실록』의 1791년 11월 기사에는 최필공과 관련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 최필

공은 흉악하여 굳게 참으면서 목석처럼 완고하였고, ... ‘큰 부모를 위해 죽는 것이 실로 효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미혹됨을 깨우쳐 살려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얼마 후 『정조실록』에는 “최필공도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회개한다고 말했다고 형조가 아뢰자 석방하도록 명하였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처럼 1791년에 최필공은 천주교 신자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고, 정조의 관대함과 설득으로 석방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혼인도 하고, 조정에 올리는 약재를 검사하는 심약(審藥)이라는 작은 벼슬도 얻게 됩니다.

정조 임금의 교화로 최필공이 천주교를 버리고 유학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최필공전>이라는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학자였던 홍양호는 자신이 남긴 문집에서 최필공에 대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1791년 옥에 붙잡힌 천주교인들이 대부분 배교하고 석방되었는데, 유독 최필공만이 굳게 천주교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곧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진실로 변하지 않았는데 어찌 거짓말로 죄를 면할 수 있겠소?” 형관들은 임금이 강제로라도 최필공을 교화시키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조금이라도 최필공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동생이 최필공을 대신하여 ‘이제 이미 마음을 바꾸었다’라

고 거짓으로 작성하였는데, 최필공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임금은 회유 작전을 쓰게 됩니다. 형벌을 가하지 않고, 형틀에서 몸을 풀어주고 옥에 가두어서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게 하면서 찬찬히 그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나 5일 후에 필공은 눈물을 흘리면서 옥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마음을 고쳐먹었소. 나를 위하여 형관에게 고해 주시오” 필공은 다시 한번 진실되게 형관에게 대답합니다. “소인은 스스로 당연히 죽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난밤에 깊이 생각해 보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상께서 열 번 죽어 마땅한 저를 너그럽게 대해주셨고, 개미처럼 미천하기 짝이 없는 저를 반드시 살려내고자 하셨으니, 이러한 은혜를 임금에게 받고도 여전히 미혹되어 고칠 줄 모른다면 이는 금수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전에 사학에 물든 것을 모두 씻어버리고 오직 성상의 명에 따르자고 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최필공은 천주교의 진리를 저버렸다기보다는 임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잠시 천주교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01년 추국이 시작되자 “이제 죽기

로 결심하였다. 천주학은 식견이 있고 지각이 있는 자가 마땅히 이를 하고 있다. 나는 결단코 고칠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며 신앙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1801년 천주교 신자에 대한 신문과 결과를 모아 둔 『사학징의』에는 최필공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판결 부분을 요약해 봅니다. “사학(邪學)에 미혹되어 신해년(1791)에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으며, 감화되어 특별히 관서 심약(關西審藥)으로 차정되었다. ... 12월 비변사의 분부에 따라 형조에서 체포해와서 매를 때리며 문초하였는데, 끝내 뉘우치지 않으므로 세 차례 형을 가하였지만 거의 목석과 같아 조금도 괴로운 기색이 없었다. 신유(1801) 2월 국청에서 끌어내다 정법(正法)하였다.”

최필공의 순교 장면은 교회 기록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최필공 토마스가 있는데, 우리가 보았듯이 아주 곧고 아주 솔직한 성격의 그는 임금의 불같은 호의를 자극했으며, 또한 지극히 감탄할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호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마지막 고문에 조금도 나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감내했다. 경험이 적었던 망나니가 그의 목을 단칼에 베지 못하자, 토마스는 상처에 손을 갖다 대고는 피로 흥건히 젖은 손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보배로운 피!’라고 기쁘게 외쳤다. 그리고는 두 번째의 칼날이 이 용감한 순교자에게 천상 고향의 문을 열어주었다.”(조선순교사 비망기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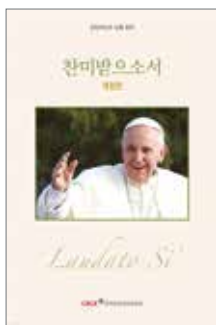
묵상

자신이 가진 확고한 신념이나 계획을 다른 핑계로 미루거나 쉽게 변경하지는 않는지요? 최필공 토마스는 임금의 권유로 잠시 천주교를 떠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천주교 진리는 옳바르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생태 교육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몇 년 전, 어떤 신자로부터 생태 위기에 대한 자료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지구 온난화는 인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와 멸종은 과거에도 있었던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념에 따라 정확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을 마주하니 참 당황스럽더군요.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지만 의외로 적지 않은 이들이 기본적인 사실에 무지한 모습을 접하면서 새삼스레 생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도 생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류 자신이 변

화”(202항)되어야 하고, “생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209항)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과 규제만으로는 나쁜 행실의 경로를 바꾸는 데에 충분치 않습니다. 실천만을 강조하는 ‘환경 운동’만으로도 한계가 있지요. “사고방식이 우리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215항)는 점에서 우리네 의식 전환을 위한 생태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칙은 “적절한 동기 부여”(211항)를 하고, “사람들이 생태적 사명에 헌신”(211항)할 수 있게 돕는 생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태 교육의 방향

「찬미받으소서」가 이야기하는 생태 교육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제공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 고취와 예방”(210항)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칙은 생태 교육의 목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생태 교육은 “개인주의, 무한한 진보, 경쟁, 소비주의, 규제 없는 시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210항), 즉 근본적이고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회칙은 “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자신과, 연대의 차원에서는 다른 이들과, 자연의 차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과, 영적으로는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210항) 다양한 단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생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조화를 이룰 때, 지구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의식도 함께 자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회칙이 제시하는 생태 교육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영성과 윤리를 연결 짓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 윤리에 가장 깊은 의미를 주는 존재는 하느님인 만큼, 생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도 “신비이신 분을 향한 도약을 이루도록”(210항)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합니

다. 이처럼 회칙은 생태 교육이 영성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생태 교육은 “사람들이 연대와 책임을,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 바탕을 둔 배려를 길러 나가도록”(210항)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 교육은 머리와 마음의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결국 손과 발을 통한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회칙이 제시하는 생태 교육도 “생활 양식의 참다운 변화”(211항)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환경에 대한 책임 교육”을 통해 “환경 보호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동”(211항)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회칙은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까지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물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나무 심기, 불필요한 전등의 소등, 대중교통 이용이나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인데요. 회칙처럼 권위있는 교회 문헌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시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일상의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생태 교육의 자리

생태 교육은 학교나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칙은 가정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습관”(213항)을 처음 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정은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보살피는 마음, 타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친절을 가장 먼저 배우는 곳도 가정입니다. 나아가 가정에서부터 배운 “진심 어린 작은 친절한 행동이 더불어 사는 문화와 우리 주변을 존중하는 문화의 건설에 도움이 됩니다”(213항). 이런 점에서 생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칙은 교회 역시 생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많

은 사회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태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특히 “신학교와 수도회의 교육 기관에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소박한 삶을 살고,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난한 이들과 환경의 취약함을 배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214항) 바랍니다. 이 제안을 따라 한국에서는 교회가 운영하는 많은 학교에서 생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생태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구와 수도회에서도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 교육을 통해 교회는 “인간, 생명,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진하려는 노력”(215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생태 교육은 오늘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구라는 우리의 집과 앞으로의 대안적인 세계를 향해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지구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생태적 전환을 위한 내적 동기와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밀한 일치를 느끼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느끼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생태 교육적 역할일 것입니다. 회칙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는 교육, “아름다운 것을 경탄하며 음미하는 법”(215항)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강조하셨듯이, “훌륭한 미적 교육과 건강한 환경 유지 사이의 관계는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215항).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오해하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간이라

는 뜻이겠지요. 우리와 지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고 자연의 일부이지만, 그 관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구의 자원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생태 위기는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일어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적 회심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다시 말해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education)은 우리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밖으로’(ex) ‘끌어내는’(ducere) 과정입니다. 생태 교육도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은 우리가 공동의 집 지구에 대해 좀 더 알고 가까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사목팀 성지순례

- 일시 : 9월 16일(토) 07:00 ~ 18:00
 - 장소 : 배론성지
 - 인원 : 50명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우회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녀 비르지타

St. Birgitta (축일: 7월 23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중국 은나라 탕왕의 격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신 일일신 우일신’(日新 日日新 又日新)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날로 새롭게 되려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 매일 새롭게 하라는 뜻의 격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역동하고 거듭나는 삶의 특성을 고무시키는 지혜의 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큼 위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의 이름과 생애를 보아도 그런 끊임없는 쇄신의 향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 이름의 어원적 의미부터 파악하면서 그 깊은 향기를 다시금 말아보도록 합시다.

비르지타라는 이름은 고대 아일랜드어인 브리기트(Brigit)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다시금 켈트어(Celtic) 브리간티(Briganti)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간티의 뜻은 “들어 높여진 이(the exalted one)”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르지타라는 이름의 어원적 의미는 ‘다른 이와 남다르게 하느님에 의해 들어 높여진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지닌 영혼에게는 남다른 하느님의 부르심, 사명이 주어진 셈입니다. 그런 이름을 지닌 그녀에게 주신 하느님의 남다른 사명은 무엇이였을까요? 한 마디로 교회의 쇄신이었습니다.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통



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 현존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세상의 것들이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부패와 타락과 몰락이 아주 빈번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어떤 특정 영혼이나 수도회를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청빈과 순명과 정결로 인도하시어, 당신 천상의 가르침, 곧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실현시키셔서 당대의 부조리함을 친히 손수 교정하셨습니다. 비르지타 성녀도 그런 충직한 여중 가운데 한명이었던 것입니다.

성녀는 14세가 되던 시기에 일찍 결혼을 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로 잘 양육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고, 이후 그녀는 하느님을 따르는 수도자로서의 삶

을 선택하게 됩니다. 알바스트라(Alvastra)라는 엄률주의 시토회에 입회하여 봉쇄관상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에는 그 유명한 흑사병이 창궐하여 여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게 되었고, 또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1347-1351년 동안 흑사병이 유럽에 만연하여 흑사병에 걸린 사람 80%에 해당되는 이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전염병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도 이런 사회의 전염병처럼, 세속화와 부패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중세 엘리트였던 성직자들이 세속화를 별로 문제삼지 않고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파문의 남용이나 성직매매의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체요 최고 성사라는 본질이 새까맣게 잊혀졌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별 볼일이 없던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들어 높이신 당신의 영혼’으로 쓰셨기에, 그녀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대담했습니다. 아비뇽 교황좌에 대해 비판하며 다시금 로마로 되돌아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후에, 또 다른 강철의 여인이었던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 의해 이것이 완수되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하느님께 붙들려서 들어 높이지면 엄청난 큰 권능의 여종이 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양의 여러 종교 사상들은 자신의 죄과와 약점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개선시켜야 한다는 ‘도덕의무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그 자신의 죄과와 약점이 하느님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신인관계론’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한국 가톨릭처럼 다종교 사회에서 다양한 사상들을 접하다보니 무엇이 더 근본이요 본질인지 많이 헷갈리게 되어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본질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우리는 이 비르지타 성녀의 삶을 본보기로 ‘도덕의무론’보다 더욱더 ‘신인관계론’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중세 유럽처럼 사회적으로는 질병과 전쟁, 재난이 닥쳐오고 있고, 교회도 빛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 복음은 언제나 끝까지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론에 더 우선해서 집중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그 어떤 지상적 슬픔과 두려움도 다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10). ㉠

영·육 간의 조화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송 예로니모 형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영양제를 한 웅큼씩 먹는다. 부 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집안 내력 때문에 40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건강 검진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에 무척 신경 쓰고 있다. 물론 술과 담배는 전혀 입에도 대지 않는다.

출근 후 점심시간에도 몸에 좋다는 영양식 위주로 먹고 매달 빠지지 않고 건강 보조식품도 챙겨 먹고 있다. 그런 덕분인지 다른 동년배 친구 들보다 젊고 건강해 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고 시력이 떨어져 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노화 탓이라고 체 념하기 보다는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을 다녀 보지만 의사들은 한 결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썩 마음에 들 지 않는다.

이제 그는 스스로 몸을 돌보기 위해, 안 아프기 위한 자신만의 건강 지 식 쌓기에 여념이 없다. 신심이 깊은 아내는 “육체의 건강만을 신경 쓰 는 ‘건강염려증’을 버리고,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 어요.”라고 말한다. ‘우리 몸은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1
주님을
초대한다

2
삶을
바라본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Question

자신의 건강을 너무 세심히 돌보는 이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 마르코 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 시편 8장 5절을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건강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시리라는 믿음에 대하여 나누어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윤리적으로 육신 생명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 생명이 절대 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윤리는 육신의 송배를 촉진시키고, 육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완벽한 육체와 스포츠의 성공을 이상화 하는 경향의 새로운 이교도적 정신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서 선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를 타락시킬 수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9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라흐마니노프 (1) - 라일락꽃과 우울증, 그리고 피아노협주곡 2번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라흐마니노프(1873-1943)는 러시아 제국의 근위대장 집안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러시아 혁명을 거치며 탈주하여 떠돌다 미국의 신생 피아노 제작사 스타인웨이(steinway)의 홍보피아니스트로 생계를 이어가다 할리우드의 비버리힐스 저택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러시아 혁명과 제1차세계대전 등 그야말로 유례없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만큼이나 그의 일생 자체도 기나긴 방황의 여정으로 파란만장하였다. 최근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어린 나이에 우승하고, 월드투어를 통해 이구동성으로 동세대 중에 최고라는 격찬을 받고 있는 임윤찬이 결선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하였기에, 클래식엔 문외한이었던 사람들조차 ‘라흐마니노프’의 낭만적인 음악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후기낭만주의의 정점으로 보이는 라흐마니노프의 아름다우면서도 우울하고 걱정적인 음악에는 그의 기나긴 방황의 인생 여정이 담겨 있기에, 그의 음악은 종교(러시아 정교회), 죽음(우울증)과 고향(러시아)을 향한 그리움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이해하기 쉽다.

라흐마니노프의 출생지는 러시아 제국의 북부 해안가 ‘벨리키 노브고로드(Novgorod)’(원래 노브고로드라는 동명의 다른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 1900년부터 이렇게 불렀다)로, 모스크바로부터 531km,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139km 거리에 있다. 바이킹족이 러시아에 상륙한 초입 도시이며, 그들이 세운 노브고로드 공국의 수도로 발트-북해의 무역거점으로 번성하였다. 후에 페터대제에 의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새로이 건설되면서 무역거

점 도시의 지위를 빼앗기고 쇠락하였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도시이다. 라흐마니노프 집안은 노브고로드에 방대한 영지를 갖고 있으며, 대대로 황제의 근위대장을 맡았던 명문 귀족이었다. 그러나 근위대장이었던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금수저 집안의 전형적인 방탕한 아들로 술과 도박에 빠져 1882년 파산에 이르렀고, 부모의 이혼과 가출에 이어 3남3녀(라흐마니노프는 넷째) 중 형도 가출하고, 1883년과 1885년 누나 둘은 사망하였다. 9살의 어린 라흐마니노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외할머니에게 맡겨져 양육되었는데, 독실한 정교회 신자였던 할머니를 따라 다닌 정교회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무반주 종교합창(베스퍼스)은 어린 라흐마니노프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라흐마니노프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노협주곡 2번 c단조 Op.13(1901)**은 우수와 우울로 가득찬 선율과 색채로 유명하는데, 그 첫 시작은 오케스트라는 내버려 두고 피아노로 내는 교회의 종소리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198cm 키로 긴 팔을 가진 라흐마니노프는 큰 손을 벌려(무려 30cm, C에서 다음 옥타브의 A까지 무려 13도) 무려 온음(흰 건반)11개의 안에 한꺼번에 7개의 음표로 넓게 펼쳐진 화성을 울리는데, 그림의 원근법처럼 작게 시작된 종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마도 외할머니와 다닌 정교회의 종소리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리라. 드디어 오케스트라가 우수와 우울로 가득찬 색채로 그동안의 라흐마니노프의 기나긴 방황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어린시절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라흐마니노프는 집안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학교에서 낙제를 거듭하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외할머니가 노쇠함에 따라 그는 1885년(12살) 다시 모스크바의 고모에게 맡겨지며 학교도 모스크바 음악원으로 이적하였다. 라흐마니노프 집안이 노브고로드의 명문 귀족이었던만큼 고모도 모스크바의 명문 귀족 사틴(Satin)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사틴 집안은 아브노브카에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88년 부활절 방학 때 여름 별장에 온 고모의 딸 나탈리아를



Destination Rachmaninov - Arrival
Piano Concerto 1 & 3
Daniil Trifonov (piano)
Philadelphia Orchestra, Yannick Nézet-Séguin

Release Date: 11th Oct 2019
 Catalogue No: 4836617
 Label: Deutsche Grammophon
 Length: 81 minutes

Grammy Awards
 63rd Awards (2021)
 Nominee - Best Classical Instrumental Solo

처음 만나게 된다. 그들의 나이는 각각 15살, 11살이었는데, 그해 여름방학 때 이바노브카에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방향을 거듭하던 예민한 사춘기의 라흐마니노프는 그의 예술가적 기질을 온전히 받아주는 4촌 나탈리아와 불같은 사랑에 휩싸였고, 급기야 4년이 지난 1892년 둘은 결혼을 선언하여 가족을 경악하게 하였다. 아마 188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뛰어난 성적으로 조기 졸업 한 후 졸업작품이었던 오페라 ‘알레코(Aleko)’의 1892년 초연의 대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었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역시 이 해 발표된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c#단조 Op.3-2’도 역시 어릴적 친숙하게 들었던 정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데, 한편 정교회와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냉소적 시각이 느껴진다.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선율에서는 19살과 15살의 달콤한 사랑과 걱정이 대조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벌써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우수와 우울이 휘감는다. 러시아 정교회는 엄격하게 4촌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었으므로, 패닉에 빠진 고모와 고모부는 이를 명분으로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였다. 라흐마니노프는 몰래 정교회에 결혼 여부를 타진하여 보지만, 1897년 정식으로 결혼 불가 통보를 받는다. 혼인과 장례는 교회 법의 관할이므로 라흐마니노프는 정교회의 허가가 없이는 관청에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다. 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설득에 나섰지만, 그 러수록 라흐마니노프의 우울증세는 깊어만 갔다. 물론 고모와 고모부는 둘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였지만, 가엾은 라흐마니노프의 고모와 고모부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았다. 고모부는 대귀족이었던만큼 황실의 공주에게 부탁



Destination Rachmaninov - Departure
Piano Concerto 2 & 4
Daniil Trifonov (piano), Philadelphia Orchestra, Yannick Nézet-Séguin

Release Date: 12th Oct 2018
 Catalogue No: 4835335
 Label: Deutsche Grammophon
 Length: 70 minutes

하여 당대에도 위대한 작가로 명성을 떨치던 톨스토이와 접견을 주선하였다. 라흐마니노프는 대문학가 앞이니만큼 당대의 위대한 베이스 살리اپ핀(Chaliapin)에게 자신이 작곡한 가곡을 부르게 하고 자신이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하였는데, 평소 존경하였던 톨스토이가 그 가곡을 혹평하여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라흐마니노프는 나락으로 떨어져 점점 우울증세가 깊어져만 갔는데, 여기에 업친데 덧친 격으로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교회로부터 결혼 불가 통보를 받았던 1897년 초연된 **교향곡 1번 d단조 Op.13(1896)**의 실패였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첫 교향곡은 1895년 1년 동안 매일 거의 7시간씩 쉬지 않고 작곡에 전념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였던 곡이었다. 1885년(12살)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모스크바 음악원으로 전학하여 탁월한 츠베레브(Zverev)교수(스크리아빈도 그의 제자)를 만나 심기일전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1887년(14살) 조기졸업하고, 이른바 모스크바-악파를 세운 차이코프스키의 뒤를 잇는 재목이라고 주목을 받았던 그였다. 젊은 라흐마니노프는 이렇게 모두의 주목을 받는 천재였던만큼 당대의 대작곡가로 명성을 날리던 글라즈노프(Glazunov)가 초연을 맡아 지휘를 하겠다고 자청을 하였다. 그런데 무슨 연유였든지 글라즈노프가 보드카에 잔뜩 취한 채 지휘대에 올라서는 일이 벌어졌고, 당연히 초연은 대실패로 끝났다. 초연에 참석했던 이른바 ‘러시아 5인조’의 한 사람 퀴이(Cui)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내



Rachmaninoff: Aleko
Sergey Murzaev (Aleko), Evgeny Akimov (Young Gypsy), Gennady Bezzubekov (Old Man), Svetla Vassileva (Zemfira)

Release Date: 29th Mar 2010
Catalogue No: CHAN10583
Label: Chandos
Series: Gianandrea Noseda Rachmaninov series
Length: 50 minutes

렸던 10대 저주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혹평하였을 정도였다. 이 혹평에는 대 음악가 림스키코르사코프도 가세하였다. 사실 이러한 혹평 뒤에는 뿌리깊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출신의 상트페테르부르크-악파와 신생 모스크바 음악원 출신의 모스크바-악파의 대립이 있었다. 차이코프스키를 잇는 라흐마니노프를 깔아뭉개는 부당한 평론은 이러한 배경을 숨긴 채 줄을 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1번은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의 평론가들은 그 파벌싸움에 더하여, 라흐마니노프가 당시의 러시아 음악의 보수적 풍토를 일신하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반감이라고 지적한다. 러시아 음악의 개척자로 불렸던 '러시아 5인조'도 당시 '실제 5인조'로서 이미 기득권층으로 둔갑되었던 것이었다. 라흐마니노프는 여기서 중세 동방정교회의 레퀴엠의 단순한 선율 '디에스 이레(dies ire)'<분노의 날이라는 뜻>를 전4악장을 관통하는 포괄적 주제로 사용하였다. 이 주제가 포르티시모(fortissimo)로 급류를 타게되면, 마치 이 세상의 재난과 고통을 전도시키는 예언자가 등장하는 듯한 '서사시(epic)적 구성'은 19세기의 러시아를 너무 앞서간 진보적 음악이었다. 라흐마니노프가 1892년 과감하게 가족들 앞에서 '금지된 사랑'을 공개적으로 선언한지 3년 후에, 한 해를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온 힘을 전부 바쳐 작곡한 이 교향곡 1번은 사회적 모순과 금지된 결혼에 대한 젊은 라흐마니노프의 분노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라흐마니노프가 평생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 작곡에 몰두한 작품은 교향곡 1번이 유일무일하다.



Rachmaninov: Symphony No. 1 & Symphonic Dances
The Philadelphia Orchestra, Yannick Nézet-Séguin

Release Date: 29th Jan 2021
Catalogue No: 4839839
Label: Deutsche Grammophon
Length: 80 minutes

이렇게 1897년의 교향곡 1번의 초연의 대실패는 이제는 드디어 육체적으로도 라흐마니노프를 쓰러뜨렸다. 오늘날 우울증은 널리 알려진 병이지만, 당대에는 병으로도 인식하지 못할만큼 아주 낯선 병이었다. 라흐마니노프의 슬픈 가족사로부터 시작되어 나탈리아와의 금지된 사랑으로 깊어진 우울증은 드디어 교향곡 1번의 실패를 단서로 융암처럼 분출되었고, 어느 의사도 원인불명이라고 치료하지 못하였다. 고모 사티나는 죽어가는 조카의 기나긴 방황의 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마지막으로 지프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라흐마니노프를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정신과 의사 달(Dahl)박사에게 데려갔다. 달박사는 당시 유럽에 처음 발표된 프로이트(Freud)의 정신의학을 직접 프로이트에게서 배우고 온 첨단 정신의학의 치료를 시도하는 의사였다. 그는 라흐마니노프에게 수면치료를 통해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적용하였고, 다행히 라흐마니노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Traumdeutung)'이 발표되었던 1900년, 아마추어 음악가이기도 하였던 달박사는 라흐마니노프의 예술가적 열정과 절망을 이해하는 몇 안되는 사람으로서 라흐마니노프를 1월부터 4월까지 집중 치료하였다. 당시 라흐마니노프가 쓴 편지를 보면 우울증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편지의 수신인은 차이코프스키의 동생으로 라흐마니노프의 오페라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Francesca da Rimini)'의 리브레토를 썼다. 라흐마니노프는 "1900년 1월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나는 음표 하나도 써 넣지도 못하였다"고 고백한다. 여



Rachmaninov: Songs
Evelina Dobraceva, Ekaterina Siurina (sopranos), Justina Gringyte (mezzo-soprano), Daniil Shtoda (tenor), Andrei Bondarenko, Rodion Pogosssov (baritones), Alexander Vinogradov (bass) & Iain Burnside (piano)

Release Date: 10th Mar 2014
Catalogue No: DCD34127
Label: Delphian
Length: 2 hours 59 minutes ase Date: 29th Mar 2010
Catalogue No: CHAN10583
Label: Chandos
Series: Gianandrea Noseda Rachmaninov series
Length: 50 minutes

기서 ‘그동안’이란 교향곡 1번의 초연시점을 말한다. 즉, 1987년 3월 27일부터 1900년 1월까지 거의 2년반이 넘도록 손끝하나 까딱하지 못하였음을 알려준다. 달박사의 4개월간의 집중치료가 끝난 후 호전되어 모스크바에 돌아온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라흐마니노프는 달박사의 치료가 끝나가던 4월에 드디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C장조 Op.17’을 작곡하기 시작할 정도로 호전되어 5월에 완성하였다. 달박사의 병원에서 회복되어 모스크바에 돌아온 라흐마니노프는 그 해 여름부터 피아노협주곡 2번과 교향곡 1번을 작곡할 때에 못지않은 열정으로 몰아쳐서 이듬해 1901년 4월에 완성한다. 치료가 끝난지 정확히 1년만이었다. 1901년 10월 27일 초연된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 생애 최고의 성공을 거둔다. 물론 이 곡은 자신을 치료해준 달박사에게 헌정되었다. 초연되기 한 달 전 9월에 고모와 고모부의 결혼 허락이 떨어졌다. 가족들은 당시로서는 과년했던 28살의 라흐마니노프와 24살의 나탈리아를 서둘러 결혼시키려고 하였지만, 아무리 명문 귀족 집안이라도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러시아 정교회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교회는 교회법을 이유로 접수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완강한 정교회의 벽에 부딪힌 고모 사티나는 근위대장을 지냈던 라흐마니노프 가문과 모스크바의 대귀족 사틴 가문을 등에 업고 직접 황제를 알현하여 특별청원을 하였다. 러시아 정교회는 로마가톨릭과 달리 이반 대제 이후 러시아 황제 ‘차르’가 정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차르는 형식적으로는 정교회의 수장일지라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 보통 종교적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

례였지만, 차르는 1902년 황실 측근이었던 양 명문가를 위해 ‘특별 결혼식’을 조건으로 혼인을 허가하였다. 정교회의 반대를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결혼식을 올리라는 조건이었다. 이에 라흐마니노프는 하례객이 없는 가운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군대 병영 안의 조그만 군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기록을 보면, 신랑 신부는 결혼식 당일, 하필이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바람에 마차의 수레바퀴가 그만 진흙탕 속에 빠져 버려 신랑 신부는 마차에서 내려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참호의 두렁길을 따라 오래 걸어진 끝에 조그만 군 성당에 도착하였고, 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빗속에서 진흙탕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린 1902년에는 러시아에 이미 혁명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다. 결혼 직후 볼쇼이 극장 지휘자 자리를 얻었던 라흐마니노프는 1907년 10월 혁명 때 라일락꽃이 흐드러지던 이바노브카의 여름 별장도 민중봉기로 불타는 것을 보았다.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은지 3주만에 때마침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연주초청을 핑계삼아 우여곡절 끝에 부인과 딸을 데리고 단돈 500루블과 악보 2개만 지닌 채로 스톡홀름행 기차를 탔다. 고국과의 이별이었다. 유럽을 떠돌던 그는 그의 나이 45살 1918년 러시아를 떠난지 12년이 지난 뒤 미국에 정착하였다. 그는 생업을 위해 거의 작곡을 못한 채, 독일의 슈타인벡(Steinweg)가문의 피아노업체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옮겨 미국식 이름으로 바꾼 신생 피아노업체 ‘스타인웨이(Steinway)’의 전속 연주자로 돈을 벌었다. 그는 볼셰비키의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나치가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는 조국을 돕는 자선 연주회를 열었다. 이에 감동한 스탈린은 아직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그에게 ‘소비에트 1급 예술가’로 예우하겠다고 귀국을 권유하였지만, 그는 거절하였다. 그가 사랑한, 그의 영혼의 고향 러시아는 라일락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사랑의 고향 이바노브카가 있는 러시아였기 때문이었다. 1902년 결혼하던 해 작곡한 ‘12개의 노래 Op.21’의 다섯번째 가곡이 ‘라일락’이었다! 🌸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가족은 언제나 화해를 필요로 한다.

정현영 요셉 신부_사목국 상설교회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절에 돌아가 과부로 살고 있어야.’ 그는 ‘이 아이도 제 형들처럼 죽어서는 안 되지’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창세 38,11)

유다는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타마르를 자신의 아들인 셀라와 결혼시켜야 했습니다. 그 관습이란,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남편의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시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첫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한 신명기 25,5-6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약속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타마르와 결혼한 두 형제가 모두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마르는 다른 방

법으로 유다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요즘 시선으로 보면 이런 사건 자체가 황당한 일이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는 가족의 형태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웨일(The Whale)>(2022)이라는 영화 안에는 가족의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인공인 찰리는 이혼을 하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혼한 후에 8년의 시간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엄청나게 커져 있었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화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작문하도록 하면서도 자신의 카메라만은 꺼놓습니다. 그를 돌보는 사람은 리즈라는 여자인데, 그녀는 찰리의 이혼의 원인이 됐던 (동성) 연인 앨런의 동생입니다. 앨런의 죽음에 준 충격으로 찰리는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건강은 악화됐으며 간호사인 리즈가 그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한 전 부인(메리)과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 그들이 이혼한 시점에는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 즈음이었을 것입니다. 찰리는 엘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자 엘리를 만나고자 합니다. 엘리는 아빠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는데, 낙제를 하게 된 처지에 에세이 쓰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찾아오게 됩니다. 찰리는 엘리가 예전에 쓴 <모비딕>에 관한 에세이를 늘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에세이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의 통증이 가라앉곤 합니다.

메리는 딸에 대한 양육권을 온전히 가져갔지만, 그녀의 마음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엘리와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는 사악하다(She is evil)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찰리에게도 그가 그녀와 결혼한 이유는 오직 아이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말도 합니다. 그녀는 찰리와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찰리에게 인간적인 연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찰리에게 그의 연인인 앨런의 죽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찰리를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던 리즈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녀는 뉴라이프라는 신흥종교단체의 간부인 더그에게 입양돼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앨런은 종교적 삶을 강요당했고, 그것이 싫어서



더 웨일
(The Whale), 2022
드라마 | 미국 | 117분



꼭꼭꼭
(Knock at the Cabin), 2023
미스터리, 스릴러 | 미국 | 100분

선교를 핑계로 남미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다시금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찰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가족, 연인 사이에서 방황하던 앨런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리즈는 찰리가 죽어가면서도 강의로 얻은 수입을 엘리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제 그녀에게 마지막 가족이라고 할 사람조차,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가 리즈의 연락을 받고서 왜 찰리를 찾아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그리움은 원망과 섞여 있습니다. 그녀가 악마처럼 찰리에게 다가올 때 찰리는 그런 그녀를 책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린 찰리의 모습과 글(“그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지옥에 기름냄새가 진동하겠네”)을 메리가 보여줬을 때에도 찰리는 그녀가 사악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찰리와 엘리의 화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생애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엘리의 옛 글을 보여주었고 엘리를 두고서 혼자 떠났던 지난날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엘리 또한 찰리의 가슴의 통증을

가라앉힐 자신의 글을 찰리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래처럼”(big animal) 몸을 일으켜 엘리에게 다가갑니다. 예전에 함께 했던 그 찬란한 해변의 기억 속으로.

이 영화는 8년이나 은둔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찰리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상처와 자신으로 인해서 남겨진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그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은 리즈밖에 없었습니다. 리즈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죽음을 앞두고 두 가지 고민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사랑스런 딸 엘리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앨런이었습니다. 앨런은 찰리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변해 버린 몸은 그가 앨런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앨런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종교는 이렇게 찰리의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부정됩니다.

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주변에

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또는 묶였던 사람들이 홀로 섬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 섬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즈음에 그들은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다리를 연결합니다. 좀 더 일찍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조금씩 늦어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메리는 찰리에게 연인이 죽은 상처를 위로했고 찰리는 엘리에게 함께 해주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서 용서를 청했습니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똑똑똑(Knock at the Cabin)>(2023)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의 멸망을 막을 가족으로 중국인 입양 소년을 키우고 있는 동성 부부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의 형태보다는 어떤 모습이 가족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세상의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거창한 것조차 가족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유다는 아들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이었던 타마르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의 죽음에 역할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관습에 수동적으로

끌려갔고, 그것이 당시를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록 관습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자신에게 행해진 처사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명백하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타마르는 창녀인 척 유다를 유혹했고, 그녀가 타마르인지 알지 못했던 유다는 그녀에게 담보물로 “인장과 줄, 그리고 손에 잡고 계신 지팡이”(창세 38,18)를 주었습니다. 후에 유다는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창세 38,26)”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타마르의 용기는 구세사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츨론을 낳았으며 헤츨론은 람을 낳았다.”(마태 1,3)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가장 거룩하면서도 위험한 곳 - 성전산(2), 통곡의 벽

심연선 소화데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북쪽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예루살렘 사진에 늘 등장하는 황금돔 사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원의 이름은 바위 돔 사원(Dome of the Rock)입니다. 말 그대로 바위 위에 지어진 사원인데, 이 바위는 성스러운 곳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려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곳이 이사악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하던 곳이라고 하고,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하여 현재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인 아브드 알 말릭에 의해 691년에 이곳에 첫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습니다. 이후 십자군 시대인 11세기에 이곳에 큰 성당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곳을 본부삼아 성지순례를 온 그리스도교인들을 돌보아주고, 각종 병을 치료해주며 머물렀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 바로 성전 기사단입니다. “기사단” 하면 몰타 기사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 요한 기사단이 가장 먼저 떠오르

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사단이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성격은 성지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회였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은 이슬람교도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성지에서 쫓겨나게 되고, 성전산에는 이슬람 사원이 다시 지어지게 되며 이슬람 왕조들이 바뀌어가며 사원들이 재건축됩니다. 십자군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전산은 무슬림들의 성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올라가볼까요? 이곳의 이름이 성전산(Temple Mount)인 이유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있었지만, 기원전 586년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 파괴되고 다시 지어진 두 번째 성전은 로마군단에 의해 파괴됩니다. 기원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이것의 원인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항

쟁을 진압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쟁은 예루살렘 함락에 이어 마사다 함락으로 인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에 항쟁을 하게 되는데 기원후 132년에 일어난 바르 코크바 항쟁입니다. 이 항쟁은 3년간에 걸쳐 지속되고 결국 로마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진압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었던 이곳이 유대인들을 결속시키는 장소라고 생각되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디아스포라(흩어지다)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도시이름을 예루살렘 대신 아일레아 카피톨리나로 쓰게 하며 유대인들을 향한 탄압을 크게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던 장소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애원을 거듭하여 일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날은 성전을 파괴한 날이었습니다. 단 한번 올 수 있는 날이 성전이 파괴된 날이라니 비통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와서 울면





↑ 통곡의 벽과 성전산



↑ 통곡의 벽



↑ 바위 사원

서 기도하고 울면서 돌아갔다고 해서 이 벽의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고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산에는 유대교 성전의 어떠한 모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현존하셨다는 지성소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수석 랍비는 성전산 위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성소가 있었던 곳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그저 남아있는 서쪽 벽에 서서 기도하는 것으로 거룩한 장소에서 신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대교 최고의

성지는 바로 이곳, 서쪽 벽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 안의 지성소는 성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 중에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벽이 바로 서쪽 벽이기에 성전산을 올라가지 못하는 유대교인이 그나마 거룩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 되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할 때에 로마군인들이 기념으로 서쪽 벽을 남겨놓았더니 더욱이 그 가치를 높게 매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통곡의 벽 중에 로마에 의해 남겨진 벽은 보이는 바닥에서부터 위로 네 칸 정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약 이천년의 세월동

안 다른 지배자들에 의해 쌓인 돌들입니다. 쌓여지고 파괴되고를 반복해왔던 것이지요. 육안으로도 돌들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층층이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돌들이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아래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슬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괜시리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시온문 쪽으로 나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면 성전산과 통곡의 벽이 동시에 내려다보이는데, 성전산 위의 바위 사원과 알 아크사 사원에서는 무슬림이 기도하고 그 아래 통곡의 벽에서는 유대교인이 기도하

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저곳이 무엇이기에 저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도들의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인들의 성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항상 엄청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출입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드나드는 곳도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위 사원 안에는 이슬람교도만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일반인도 들어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만, 테러가 일어난 이후로 금지되었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곡의 벽으로 다시 시선을 옮



↑ 통곡의 벽 지하터널



↑ 통곡의 벽 (기도)



↑ 성인식하는 유대인



↑ 오펠 박물관

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통곡의 벽 지하를 발굴해보기로 합니다. 통곡의 벽 아래를 발굴해보니, 지금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높이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벽이 지하에 묻혀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주 큰 기반암이 자리 잡고 있어 그곳에서 돌을 채석하여 성전 또는 성전 벽을 짓는데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주변을 발굴하고 있고, 그 발굴된 곳을 알기 쉽

게 설명을 해놓고 공개하는 노력이 대단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곡의 벽이 있는 자리에는 티로포에온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골짜기의 유무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메워져있는데, **분문(덩게이트)**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의 **오펠 도시**를 보면 약간 어림짐작을 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오펠 도시도 가볼만 합니다. 덩게이트 근처에 입구가 있고 입장료를 내면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성전 남쪽을 발굴해서 만든 이 오펠 도시는 그 당시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었고,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을 오가며 제사를 지냈는지에 관련해 시청각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

니다. 최근에는 다윗성과 이어지게 만들어 놓아서 다윗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까지 한 번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이천년의 세월동안 팔레스티나 땅을 떠나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을 발굴하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임에 틀림없지만 여전히 성전산과 통곡의 벽을 둘러싼 긴장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폭탄 같은 불안함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토라를 읽는 날이라고 하여 이곳에서 성인식을 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뿔나팔을 불며 성인식을 하는 아이를 무릎에 태우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함박 웃음꽃이 가득한 얼굴로 남쪽의 시온문에서 통곡의 벽까지 행렬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군인부대들의 정신교육 및 선언식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성지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의 긴장한 눈빛과 순례객들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사이로 오늘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봅니다.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_ 7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라자로와 그 여동생들 마르타와 마리아

윤인복 소화테레사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인 벳타니아에서 살았던 성 마르타(St.Martha, 1세기경)와 성 마리아(St.Maria), 그리고 성 라자로(St. Lazarus) 형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라자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를 만큼 그분과 친밀하게 지낸 인물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들 집에 머물 때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마르타는 그분께 정성껏 시종을 들었다. 라자로가 병에 걸려 위독할 때도 두 자매는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분에게 소식을 알렸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라자로가 죽은 후였지만, 예수님은 라자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고,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가정주부의 수호성인 마르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마을, 벳타니아를 지날 때 라자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다. 마르타는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그분을 모셨다. 예수님을 비롯해 한 무리의 제자들이 마

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들이닥친다. 그녀는 무려 열세 명의 장정을 위해 음식을 잘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했다. 마르타는 손님에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는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만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편하게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

벨기에 도시인 안트베르펜 출신의 두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와 얀 브뤼겔(Jan Brueghel II, 1601-1678)은 멀리 푸른 풍경이 펼쳐진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배경으로 풍속화처럼 루카 복음서의 내용을 충실히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 가운데 앉아 계신다. 오른쪽에 마리아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보다 낮게 앉아 겸손하고 경건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말씀을 담은 책을 손에 들고 있고, 그녀의 등 뒤 탁자 위에 과일



마에스트로 드 페레아, <두 여동생 마르타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성 라자로>, 16세기경, 라자로 갈디아노 박물관, 마드리드

바구니와 발치에 놓인 바구니 안에는 포도가 가득하다. 포도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온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평화와 축복을 의미하고, 알알이 맺힌 열매와 뽀어나가는 넝쿨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그러나 포도의 가장 큰 상징은 우리 죄에 대해 속죄하시려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포도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사 때 사용하는 미사주는 포도주이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포도는 특별한 의미의 과일임이 틀림없다.

마르타는 선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앞치마를 두르고 옷소매를 걷어 올린 그녀의 모습은 정신없이 일하다가 부엌에서 나

온 모습이다. 그녀는 투덜대며 예수님께 일하지 않는 동생을 타일러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유다 전통에 따르면 여자들은 라베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마리아의 의무는 부엌에서 마르타의 일을 돕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람어로 마르타는 “여주인, 부인”을 뜻하는 말로 마르타는 손님들의 시종을 총괄하는 한 집의 여주인격인 셈이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루카 10,41) 예수님이 마르타의 집에 머물 때, 그분께 더 잘 대접하기 위해 안절부절못하며 신경 쓰는 그녀에게 다



루벤스와 브뤼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
1619-20년, 아일랜드 국립미술관,
더블린

소 섭섭하게 느낄 수 있는, 애정 어린 꾸중을 하셨다. 영성적이고 지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인 동생 마리아와는 달리, 마르타는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필요한 일들을 염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마르타의 가사 일에 대한 활동적인 면모 때문에 그녀는 중요하지 않은 듯하며 티도 잘 안 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의 수호자로, 가정주부의 수호성인이 된다. 이런 까닭에 화가들은 주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오셨을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타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그녀의 주된 상징물은 부엌에서 쓰이는 도구와 열쇠 꾸러미, 혹은 양동이와 국자

같은 것이다. 가끔 그녀가 성수통과 성수채를 들고 있기도 하다. 전승에 따르면, 마르타가 타라스콘의 숲을 오염시킨 용을 성수통과 성수채를 이용하여 쫓아버렸다고 전한다.

이탈리아 화가 야코포 바사노(Jacopo Bassano, 1517경~1592)가 그의 아들 프란치스코 바사노(Francesco Bassano, 1549~1592)와 함께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음식 준비로 분주한 부엌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벽난로가 있는 목가적인 부엌에는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오른쪽 벽난로 아래에서 젊은 여인은 스프를 끓이고, 라자로는 식탁에 앉아 햄을 썰고 있다.



야코포 바사노, 프란치스코 바사노,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한 그리스도>, 1576-77년경,
새러 캠벨 블래퍼 재단, 휴스턴

왼쪽에 소년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물고기가 담긴 바구니에서 물고기를 손질하려고 바빠 움직이고 있다. 마르타는 손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는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만 있었다. 왼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마리아도 예수님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마르타가 조급해하고 염려하는 마음과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반면, 마르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풍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우선 배려하며 일상적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하느님

의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를 잊어버릴 만큼 마르타가 많은 바쁜 일에 깊이 빠지지 않길 바라시는 마음이셨을 것이다. ‘기도하고 일하라, Ora et labora’ (성 베네딕토)

마르타의 활동적인 모습은 오빠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동생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지만, 마르타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성경 말씀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살았던 라자로

라자로라는 이름은 루카 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루카 복음의 라자로라는 부자와



루카 디 톰메, <라자로의 소생>, 1362년경, 바티칸 회화관, 바티칸

라자로의 비유에 나오는 거지이며, 요한복음의 라자로는 예루살렘 근처인 벳타니아에 사는 사람을 말한다. 성 라자로(Lazarus, 1세기 경)는 벳타니아에서 누이동생인 마르타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예수님이 수난당하기 직전 유다국 동쪽인 페레아에서 전교하실 때 라자로는 갑자기 병에 걸려 위독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오빠가 아프니 제발 와서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예수님께서 전갈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벳타니아로 갔을 때는 이미 라자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장례를 지낸 지 4일이나 되었다. 예수님은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라자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미술에서 라자로의 모습은 요한복음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관 속에 있는 그를 살리는 장면이 가장 많다. 이탈리아 시에나 화파인 루카 디 톰메(Luca di Tommè, 1330년 경~1389)는 바위가 많은 지역을 배경으로 라자로의 소생 장면을 묘사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라자로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어졌다. 그림 중앙에 그의 두 여동생 마르타

와 마리아가 죽은 오빠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두 자매의 무릎을 꿇은 행동과 표정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소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대변하고 있다. 두 자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이라도 하듯, 왼쪽의 예수님은 힘과 권위와 단호함을 담은 시선으로 오른손을 들어 무덤에서 나온 라자로를 축복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향해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요한 11,43) 하고 명령하신다. 말씀에 힘이 느껴진다. 평범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힘을 지닌 말씀이다. 예수님의 시선은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여 썩어 냄새나는 라자로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듯하다.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분! 하느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초자연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이 광경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동굴 옆 사람들은 나흘 전에 죽은 사람에게서 나는 썩은 냄새 때문에 코를 막거나 옷자락으로 입을 가리고 있다. 예수님의 곁에 벳타니아까지 따라온 제자들의 얼굴에는 이 위대한 기적에 몹시 두려운 표정과 더불어 경외의 감정이 역력하다. 화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분임을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라자로의 입까지 연결된 선을

통해 직접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이 생명의 입김을 불어 넣으시어 서서히 그는 눈이 열리고, 입술이 조금씩 벌어져 새로운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죽었던 라자로에게 서서히 생명의 기운이 돌아오고 있는 표현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바로 현실이 된 것이다. 유대인들이 공공연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찾아와 다시 살리신 것은 이유가 있다. 라자로의 소생으로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예고하시고, 더불어 하느님의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려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신 것이다.

라자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후의 활약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라자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타와 함께 프랑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그는 마르세유의 첫 주교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키고, 일생을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고 전한다. 라자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리스도교 박해 때에 순교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요한 11,35)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_ 8월

화가의 수호성인 성 루카

윤인복 소화테레사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성 루카(Lucas, 1세기경)는 신약성경의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성 바오로의 협력자로 알려져 있다. 루카는 성 바오로가 전교 여행을 하는 동안 함께 수행하며, 그곳에서 공동체를 지도하였다고 전한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안티오키아 출신이었으며 성 바오로는 그를 “사랑하는 의사 루카”(콜로 4,14)라고 불렀다.

루카에 관해 제일 많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성모 마리아를 처음으로 그린 화가라는 것이다. 그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세한 치유 행적과 성모 마리아의 인격적 모습을 잘 다루고 있다. 루카는 온 일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다가, 오늘날 그리스의 보예지아(Boezia)에서 84세에 순교했다고 전한다.

비잔틴 정교회의 전승은 성 루카 사도가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 이콘을 그렸다고 전한다. 루카가 직접 그린 성모 마리아 이콘은 안티오키아의 테오피루스에게 전한 것으로 알

려졌다. 6세기경 비잔틴 역사가자인 테오도로스 렉토르는 그가 저술한 「교회사」에서 5세기경 테오도시우스 2세의 부인인 황후 에우도키아가 자신의 시누이인 폴체리아에게 주기 위해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있던 루카가 그린 그림을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루카의 성모 마리아 그림은 ‘호데게트리아(Hodegitria, 신을 향해 길을 인도하는 여인이란 뜻)’라고 불리는 이콘 유형의 하나이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곧은 자세로 정면을 향하여 있고 성모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왼쪽 무릎 위에 앉힌 채 그녀의 한손은 아기 예수를 가리키며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듯 한 형태이다. 아기 예수는 로고스를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왼손에 들고 있고, 오른손은 축복을 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의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린 모습으로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수여(중여)의 자세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 세상에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



디오니시, <호데게트리아>, 1482년, 트레차코프 미술관, 모스크바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이든 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는 성서 구절을 상기시킨다.

‘호데게트리아’ 성모 마리아 이콘의 유형은 843년 이콘 논쟁이 끝나면서 이콘만이 아니라 비잔틴 정교회의 모자이크와 프레스코 벽화에도 널리 확산되었으며, 비잔틴 제국에서 가장 널리 퍼진 이콘 유형의 하나이며 콘스탄티노플의 수호 이콘이 되기도 했다. ‘호데게트리아’라는 이름은 맹인들을 위해 봉사하던 콘스탄티노플 소재 호데곤(Hodegon) 수도원, 즉 ‘길을 인도해주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수도원에 이 유형의 그림이 보관되었기에 붙여진 것이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시선은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의 시선은 아기 예수를 향하지 않고 외부를 향하고 있어서 무한을 응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예수의 시선 역시 자신에게 다가올 수난을 예견하듯 먼 곳을 향하고 있다.

루카와 성모자

본명이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폴로스(ΔΟΜΗΝΙΚΟΣ ΘΕΟΤΟΚΟΠΥΛΟΣ)인 엘 그레코(EI Greco, 1541~1614)는 <성모자를 그리는 성 루카>에서 복음사가 성 루카와 호데게트리아 유형의 성모 마리아를 중심 모티프로 그렸다. 엘 그레코는 스페인의 톨레도에 정착



엘 그레코, <성모자를 그리는 성 루카>, 1567
이전, 베냐키 박물관, 아테네

하여 명성 있는 화가로 활동했지만, 그는 그리스 크레타 섬의 칸디아에서 출생하여 이탈리아로 건너가기까지 크레타 이콘을 그렸다. 그는 그리스 크레타에서는 비잔틴 미술의 전통을 익혔고,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의 빛과 색채, 매너리즘의 기법과 형식을 습득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반종교개혁의 교리와 신비주의 사상 등을 반영한 종교 예술을 표현했다.

엘 그레코가 크레타에서 그린 작품 가운데 하나인 <성모자를 그리는 성 루카>는 일부 손상되기는 했지만 루카가 성모자를 그리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엘 그레코가 그린 이 작품에는 당시 동방과 서구 유럽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으며, 서구 예술에 대한 그의 관심과 놀라운 숙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루카의 얼굴과 몸의 일부만이 손상되긴 했지만, 그의 머리 뒤에 황금색으로 묘사된 후광과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주름 표현은 비잔틴 이콘 형식을 보여준다. 또한 황금빛을 배경으로 인간적인 모습의 호데게트리아 성모 마리아의 표현도 비잔틴 이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루카가 앉아 있는 의자, 안료 상자를 받치고 있는 작

은 의자 그리고 중앙에 월계관과 흰색 리본을 들고 있는 천사의 출현 등의 구성은 서구의 미술요소이다. 이젤의 위치와 그 위에 놓인 성모자상 그림은 안쪽으로 향해 단축되도록 표현하고, 바닥은 대각선으로 나타내어 3차원적인 공간의 깊이를 재현하고 있다.

또한 엘 그레코는 그림을 비잔틴적 요소로 구성하고 있지만, 색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붉은 옷을 입은 루카와 자주색 히마티온(himation)을 입은 성모 마리아 사이에는 짙은 초록색 옷을 걸친 천사가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 천사는 성스러운 성모자를 그리고 있는 루카에게 월계관을 씌우려 한다. 그리고 주로 전체 배경을 황금색으로 표현하는 비잔틴 미술의 특징과는 달리 인물과 사물을 제외한 전체적인 배경은 더 이상 황금색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 벽면과 바닥은 색으로 분리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살리고 있고, 그림 그리는 루카의 동작은 하체의 표현을 통해 역동적으로 드러난다. 그의 옷의 굽은 주름과 이젤 위의 성모 마리아 옷에 묘사된 하이라이트는 흰색으로 강조되어 입체감을 더한다. 그리고 그림에서 엘 그레코의 서명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독특한 위치에 적혀 있다. 화가는 열려진 안료 상자가 놓여있는 긴 의자의 측면에 ‘도메니코의 손에 의해(EIP ΔΟΜΗΝΙΚΟΥ)’라는 사인을 적어 넣었다.

루카와 붓

엘 그레코의 후기 작품으로 스페인 톨레도 대성당에 성 루카를 주제로 그린 것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비잔틴 미술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최초의 이콘 화가이면서 복음사가인 성 루카는 자신을 상징하는 붓과 책을 들고 있다. 화가의 모티프가 되는 붓을 진 루카와 성모자상이 그려진 책은 빛을 받아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다. 펼쳐진 책 위에는 루카가 그린 ‘호데게트리아’의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는데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반신상으로 표현한 루카는 마치 환영에 빠져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신적인 영감에 사로잡혀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인물 뒤로 어둡게 처리된 배경이 루카 사도에게 비쳐진 빛과 대조를 이루며 인물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비잔틴 이콘에서 성인이나 그리스도의 눈은 정면이나 혹은 저 먼 곳의 상부를 향하도록 표현한다. 성스러운 존재의 탈물질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루카의 표현 방식이 당시 스페인의 신비주의적 영성의 반영일 수도 있겠지만, 엘 그레코는 비잔틴 이콘의 조형언어를 통해 루카의 탈물질화와 초월적인 정신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엘 그레코, <성 루카>, 1605-1610년, 톨레도 대성당, 스페인

루카와 황소

루카의 모습은 복음사가로 복음서를 저술하거나 성모자를 그리는 모습 이외에 책과 황소와 함께 자주 등장한다.

이탈리아 화가 구에르치노(Guercino, 1591~1666)는 자연주의적인 화풍으로 섬세하게 성 루카가 성모자를 그리는 모습을 묘사했다. 커다란 이젤 위에는 거의 완성된 듯한 성모자 그림이 놓여 있고, 루카는 팔레트와 붓을 든 채 자신이 그린 성모자의 초상을 바라보도록 오른손을 들어 가리키고 있다. 상체

를 곧게 세운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아기 예수수가 앉아 있다. 성모 마리아의 표정은 다소 엄숙하고 위엄이 있어 보인다. 아기 예수는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고 왼손에는 말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복음사가 루카와 성모 마리아 사이의 질은 초록색 옷을 걸친 천사는 루카의 그림에 빠져든 듯 감상하고 있다.

오른쪽 뒤 탁자 위에는 루카를 상징하는 황소와 복음사가를 의미하는 펜이 놓여 있다.



구에르치노, <성모자를 그리는 성 루카>, 1652-53년, 넬슨 아킨스 미술관, 캔자스시티

루카 복음서는 사제 즈카르야가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기에 황소로 상징된다. 이밖에도 마태오복음서는 인간 삶의 여정인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마르코복음서는 요한 세례자의 광야 설교로 시작하기에 광야의 왕 사자로, 그리고 조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독수리만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지녔고, 요한복음서의 신학이 날카롭고 깊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서는 독수리로 표상된다.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 27-28) 🐮



행사내용 확인하기

제28회

농민 주일

2023
7.16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창세 2,15



@seoulwurinong



facebook.com/wrn.kr



(사)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wrn.kr (우리농 창보기)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기꺼이 따스한 한 끼를 드릴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 해주세요.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 전화 02-774-3488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mdbj.or.kr)





angel [eyn-juhl]

noun

1. one of a class of spiritual beings; a celestial attendant of God. In medieval angelology, angels constituted the lowest of the nine celestial orders (seraphim, cherubim, thrones, dominations or dominions, virtues, powers, principalities or principedoms, archangels, and angels).
2. a conventional representation of such a being, in human form, with wings, usually in white robes.
3. a messenger, especially of God.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